

백승준 행정학 강의계획서

“총론의 깊이 있는 전달과 각론의 체계적인 정리의 유기적인 학습에 중점을 둔
상세한 설명과 이해중심의 행정학 강의!”

■ ■ 담 당 백 승 준

- 서울대 행정대학원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박사통합과정수료(정치철학전공)
- (전) 한국행정학(유민봉 著) 개정위원
- (전) 서울대정부혁신시스템센터연구원,
- (전) 한국조사학회연구원
- (전) 기획예산처 등 혁신연구원 역임

■ ■ 강의일정 2018년 5/30(수) ~ 6/21(목), 총 20회 ※ 월~토 강의

■ ■ 시 간 [오후 실강반] 1시40분 ~ 5시20분 ※ 6/9(토) ~ 6/16(토) 저녁 6:40 ~ 10:20 강의진행

■ ■ 강의교재 ▶ 한국행정학(유민봉, 서점구매) + 입문자용 행정학 WORKBOOK(백승준, 학원판매, 실비제공) + 입문자를 위한 핵심수험자료(무료제공)

■ ■ 개설취지 ■ 입문자를 위한 강의 - 기본서 활용과 기출분석을 통한 안정적 기반 확립 수험에서 모험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시작의 시기에 행정학(行政學)이라는 학문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강의를 기획했습니다.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가장 기본적인 콘텐츠를 논리적 방법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안정적 기반과 토대가 닦여져야 이후의 순환과정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합니다.

■ ■ 강의특징 ■ 한국행정학(유민봉 著)을 가장 잘 전달하는 강의 행정고시의 행정학은 『한국행정학(유민봉 著)』으로 입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많은 합격생과 전국의 행정학과 교수님들께서도 적극 추천하시는 입문용 교과서입니다. 유민봉 교수님의 Lab에서 활동했고, 한국행정학 개정위원으로 참여했던 백승준 선생을 통 해, 비전공 · 초심자가 행정학에 입문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저자의 집필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총론과 각론의 유기적 연계

경제학에서 미시와 거시가 모두 중요하듯이 행정학도 총론과 각론을 유기적으로 학습하
야 합니다. 총론과 각론을 모두 중요히 다루어 강의를 진행합니다. 특히 각론의 여러 문제
해결기법들은 고시 과목 가운데서도 행정학에서만 다루는 소재입니다.

행정학 특유의 응용사회과학적 시각을 익히기 위해 총론과 각론의 유기적 연계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중요합니다.

■ 행정학 입문자

추천 학습법

- 유민봉 교수님의

『한국행정학』 활용

※ 초심자가 『한국행정학』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5급공채 행정학은 논술형태로 출제되기에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답안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문과정부터 논리구조와 가독성 좋은 책을 통해 기초부터 진행해야 큰 혼선 없이 강사교재와 함께 심화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행정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범위의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수험가에서 통용되는 『한국행정학』이나 『새행정학』,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을 모두 보더라도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차피 모든 교과서가 빠진 내용이 많은 상황이라면 위에서도 논의한 바이지만 가장 논리적이고 가독성 높은 책으로 공부하되, 철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강사가 저술한 수험서를 같이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험전략적으로 보건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입문기본서로서 가장 적합한 책이 유민봉 교수의 『한국행정학』입니다.

행정학 입문은 『한국행정학』을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입문교과서의

종류와 특징

교과서명	출판사	저자	특징
한국행정학	박영사	유민봉	가장 많이 보는 기본서로 자리매김. 2차 시험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교재로서 글 자체의 논리성이 높으며 가독성이 좋음. 행정학적 글쓰기가 어려운 수험생에게 기준을 제공. 전자정부 등의 최신소재도 잘 반영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다수	목차구조가 체계적이며 다양한 시각이 잘 수록되어 있음. 저자가 많은 관계로 각 대학에서 개론서로 채택되는 비율이 높아, 고시촌에 입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정정길	행정학의 총론적 방향을 잡기에 좋은 논리구조. 은퇴하신 이후에도 정정길 교수님의 행정학계에서의 영향력과 막강한 제자라인을 통해 꾸준히 언급되어지는 책.

※ 입문서와 수험서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 교과서

활용시기

(한국행정학 기준)

순환	방학 입문자강의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순환 특징	입문자 강의 -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수험입문자에게 제공되는 숲을 보는 강의	시작하는 강의로서 기본강의보다는 발전된 형태의 강의.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강의 없이 예비순환부터 입 문하는 경향.	본격적인 심화 강의이며 강사 교재의 비중이 점차로 높아집 니다.	기존의 학습내용 을 총 정리하며 난이도가 높거나 새로운 이슈 등을 집중 연습합니다.	실전모의고사 (매일 시험)
교재	교과서	교과서+ 강사수험서	교과서+ 강사 수험서	강사수험서	강사수험서

※ 교과서(한국행정학 등)와 수험서(강사의 정리된 수업교재)를 구분합니다.

진도별 강의내용(진도별 핵심논점)

강의회차	날짜	강의내용
■ 제 1 회	5월 30일(수)	<p>【행정학 입문-오리엔테이션】</p> <p>행정학의 입문과정이 진행됩니다. 행정학은 과학적 성격뿐만 아니라, 진단과 처방의 문제해결적 성격을 모두 갖춘 응용사회과학으로서 의학(醫學)과도 속성이 비슷한 학문입니다.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측면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되곤 합니다.</p> <p>주요 초점은 비전공 · 초심자라도 행정학에 대한 흥미를 느껴보도록 하는데 있습니다.</p>
■ 제 2 회	5월 31일(목)	<p>【행정학을 위한 인문학 특강 - 수험 행정학에 기초가 되는 배경지식 특강】</p> <p>한번쯤은 다지고 넘어가야 하는 분야입니다. 행정학이 소위 ‘뜬구름 잡는 과목’ 이라고 느끼는 이면에는 배경지식과 논리적 사고에 대한 기본바탕이 부족한 상황에서 입문하기 때문입니다. 행정학 입문을 위해 필요한 배경지식과 필수 인문학 콘텐츠를 학습하되 수험의 범위내에서 진행합니다.</p> <p>기본기라 갖춘다 함은 이런 부분을 숙지하는 것을 말하며, 이 파트를 이해하고 난뒤에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시각과 글을 쓰는 역량이 훨씬 업그레이드 됩니다.</p> <p>아울러, 행정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경제학 등 여타의 과목에 있어서도 기본기를 확립할 수 있는 강좌로서 비전공 · 초심자들이 수험을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내용들로만 구성합니다.</p>
■ 제 3 회	6월 1일(금)	
■ 제 4 회	6월 2일(토)	<p>【공공가치】</p> <p>공공가치(public value)실현은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행정학은 경험적 · 실증적 지식뿐만 아니라 당위적 · 규범적 지식도 필요하므로 가치의 문제가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부각됩니다. 전통적인 빈출소재이며, 작년 행정고시에서는 공공성과 효율성에 대해, 올해 입법고시에서는 효율성과 민주성에 대해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올 부분으로 예상되며, 위에서 배운 입문자용 철학특강을 알면 정말 쉽게 공부되는 부분입니다.</p>
■ 제 5 회	6월 4일(월)	<p>【행정학 발달사-미국행정학 발달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과의 비교】</p> <p>한국 행정학은 미국 행정학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미군정 이후부터 시작되었던 영향력은 199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추진되는 신공공관리주의를 통해 절정을 맞게 됩니다.</p> <p>그러나 미국은 우리와는 너무나 상이한 역사와 행정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국행정이론은 선택적으로 수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행정이론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188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정통파 행정학의 등장과 완성, 1940년대부터의 정치학적 행정학으로의 복귀, 1960년대부터의 정책학과 실행행정학의 등장, 1980년대부터의 대통령과 행정윤리론 및 신공공관리론 등이 해결하고자 했던 미국행정의 시대적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하여서만, 미국의 행정학, 즉 현대행정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미국행정학의 비판적 수용을 통한 한국적 행정학 정립의 기초도 다질 수 있게 됩니다.</p>
■ 제 6 회	6월 5일(화)	

■ 제 7 회	6월 6일(수)	【NPM과 거버넌스】 재정운영의 실패와 강한 정부의 불신으로 서구사회에서 야기된 신자유주의 사조는 행정학적으로 NPM의 직접적인 동인(動因)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장지향성과 관리지향성의 한계에서 Governance의 개념 대두의 원인이 됩니다. 국정운영에 새로운 대안으로 언급되는 거버넌스는 그 개념적 정의의 다양성만큼이나 논의의 시대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를 완벽히 이해해야 현대행정학의 논의를 정확히 배울 수 있게 되므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1순환 과정을 통해 여타의 거버넌스론과 병행하여 발전된 논의가 진행됩니다. 거버넌스를 통한 자연스러운 행정학적 시각이 생기게 되실 겁니다
■ 제 8 회	6월 7일(목)	
■ 제 9 회	6월 8일(금)	
■ 제 10 회	6월 9일(토)	
■ 제 11 회	6월 11일(월)	【행정의 처방적 성격: 전략적 기획과 전략적 관리】 행정의 처방적 성격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행정학은 인접한 순수사회과학과는 달리 문제해결지향적이고 처방적 성격이 강한 학문입니다. 그에 대한 방법론으로서 전략(strategy)을 통한 관리의 기본개념을 숙지합니다.
■ 제 12 회	6월 12일(화)	
■ 제 13 회	6월 13일(수)	【성과관리】 현재 국정운영의 메카니즘은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로 대표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성과관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기반으로 BSC, 성과계약등평가, 성과관리에산제도 등 성과관리 관련 이슈들을 확인합니다.
■ 제 14 회	6월 14일(목)	【전자정부론(Electronic Government)】 최근 행정학의 새로운 키워드는 정보화 및 전자정부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도 새로운 신조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정부운용에서 전자정부를 빼놓고 논의한다는 것은 넌센스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축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출문제에 정보체계관련 내용을 반영한 소재가 자주 등장하는데, 한국행정학 16장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소재입니다.
■ 제 15 회	6월 15일(금)	【인사행정론】 인사행정이란 직무와 개인의 통합과정으로서 정부활동 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활동입니다. 정부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충원하고 유지하며,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공공인사행정을 다루어봅니다. 전통적 인사행정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인사행정 혁신에 대해 학습합니다.
■ 제 16 회	6월 16일(토)	
■ 제 17 회	6월 18일(월)	【조직론】 조직론은 범위가 굉장히 넓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핵심적 사항위주로 철저히 이해하다보면 압축이 가능합니다. 조직행동론과 조직구조론을 모두 다루되, 범위를 폭넓게게 해석하여 조직문화, 갈등관리도 이 부분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 18 회	6월 19일(화)	
■ 제 19 회	6월 20일(수)	【재무행정론】 전통적 재무행정이론과 재정개혁및 혁신의 모든 부분을 아우릅니다. 교과서와 논문뿐만 아니라 정부발행 최신자료 등을 취합하여 현실정책을 완벽히 이해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재무행정론은 뚜렷한 개혁적 성과가 많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빈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제 20 회	6월 21일(목)	
■ 개별 피드백 특강		【피드백 프로그램】 수업이 끝난 뒤 일정을 정하고 수강생과 강사가 직접 만나서 개인 피드백을 진행합니다. (개인 혹은 그룹 여부는 따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피드백 프로그램을 통해 수준별 ·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수험 전반의 멘토링 시스템이 형성됩니다.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Jobs says

This is the text of the Commencement address by Steve Jobs, CEO of Apple Computer and of Pixar Animation Studios, delivered on June 12, 2005.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It made an impression on me, and since then, for the past 33 years, I have looked in the mirror every morning and asked myself: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And whenever the answer has been "No" for too many days in a row, I know I need to change something.

Sometimes life hits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Don't lose faith. I'm convinced that the only thing that kept me going was that I loved what I did.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And that is as true for your work as it is for your lovers. Your work is going to fill a large part of your life, and the only way to be truly satisfied is to do what you believe is great work. And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If you haven't found it yet, keep looking. Don't settle. As with all matters of the heart, you'll know when you find it. And, like any great relationship, it just gets better and better as the years roll on. So keep looking until you find it. Don't settle.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Don't be trapped by dogma — which is living with the results of other people's thinking.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 And most importa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They somehow already know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Stay Hungry. Stay Foolish." It was their farewell message as they signed off. Stay Hungry. Stay Foolish. And I have always wished that for myself. And now, as you graduate to begin anew, I wish that for you.

Stay Hungry. Stay Foolish.

Stanford Report, June 14, 2005